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7년 1월 넷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中 수출 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코스모닝]

7월부터 '죽음의 알갱이'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에 못쓴다[연합뉴스]

정부-화장품 업계 '긴급 회의'..사드보복 대책 고심[이데일리]

〈해외화장품시장동향〉

호주 바이어에게 듣는 한국 화장품의 진출방안[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법령 정보 17

협회 업무추진현황 19

행사 소식 24

회원사 뉴스 28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中 수출 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 (’17.1.19)

-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시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둥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 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가 등록관리제로 변경돼 잠정 실시됨
- 이에 따라 수입화장품 생산기업과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함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中-수출-화장품-등록관리제로-전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 (’17.1.1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http://www.mfds.go.kr)는 소비자가 의약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음
- 화장품 부문에 대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기조로 △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함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화장품-안전관리-체계-강화가-핵심/>

기능성화장품 신설·유형 확대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가 핵심 기조(’17.1.12)

-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http://www.mfds.go.kr)가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식약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이에 따른 후속 작업(기준·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등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임
- 새해 화장품 산업 정책의 기조는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이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의 효율성 제고, 수출지원에 대한 강화, 그리고 제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기능성화장품-신설-유형-확대-따른-안전성-관리-강/>

믿고 쓸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총력 (’17.1.16)

- 식약처가 ‘2017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음
- 관리계획의 큰 방향은 의약외품의 경우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선제적 안전관리 확보, 화장품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음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450/cat/10/page/1>

유기농, 영·유아 화장품 광고 집중 점검 ('17.1.13)

- 정부가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등에 대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음

- 관련링크:

<http://www.geniepa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82>

할랄·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 ('17.1.15)

- 오는 5월 30일부터는 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화장품법 행정처분 기준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에 따라 완화됨
- 지난 12일자로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지난 해 5월 29일 공포(법률 제 14264호)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할랄·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가능/>

7월부터 '죽음의 알갱이'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에 못쓴다('17.1.1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3/02000000000AKR20170113178800017.HTML?input=1195m>

탈모 여드름 관련 화장품 효능 정도 표현 수위 낮춰('17.1.17)

- 오는 5월부터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탈모와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효능 정도를 표현하는 수위가 낮춰졌음
- 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과정에서 '방지'나 '개선'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없애고 대신 '완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했음

- 관련링크: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366>

법정부 차원 화장품 육성방안 금년 내 수립 ('17.1.16)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월 12일 화장품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홍보프로그램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 통관 불허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442/cat/10/page/1>

복지부, 중소화장품 기업 수출 지원 강화 ('17.1.15)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최근 화장품업계 간담회를 열고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
- 복지부는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 관련링크: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115800002>

“정치적 보복 아닌 규정 위반 결과” ('17.1.12)

- 식약처는 11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반송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중국의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권오상 과장은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화장품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고 중국 규제관련 교육(위생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해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음

- 관련링크:

<http://beautynury.com/news/view/75416/cat/10>

“화장품 불합격은 사드 탓 아닌 우리 탓”... 식약처의 '용기' ('17.1.13)

- 지난 11일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 탓에 한국 화장품 19개 제품이 중국에서 무더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밤 '중국 화장품 반송 관련'이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놓으며, "중국으로 수출한 국내 화장품이 반송된 것은 (우리 업체가)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발표함

- 관련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3/2017011300253.html

정부-화장품 업계 '긴급 회의'..사드보복 대책 고심 ('17.1.17)

- 정부가 화장품 등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음
-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한중 통상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참석한 화장품·전자 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음

- 관련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3496486615798704&DCD=A00106&OutLnkChk=Y>

유한킴벌리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 중지 ('17.1.1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 <http://www.mdfs.go.kr>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음
- 식약처는 이번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 수치에 대해 위해평가를 한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유한킴벌리-물티슈-10개-제품-판매-중지/>

전국 117개 산업단지에 492개 화장품 제조사 입주 ('17.1.13)

- 2016년 11월 기준 전국에 분포한 산업단지 내 화장품 제조공장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7개 단지 내에 492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음
- 화장품 제조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였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429/cat/10/page/1>

중 수입화장품 가격인하 러시 ('17.1.17)

- 지난해 9월 중국 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10월부터 일반 화장품 소비세를 폐지하고 과세 대상을 고급화장품으로 한정했으며 세율은 기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재 단계에서 화장품 가격이 투명해지고 있어 해외 화장품 기업이 중국 소매 가격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수입화장품-중국-내-가격인하-실시/>

한류테마 中 쇼핑몰, 입점 유의해야 ('17.1.18)

- 최근 중국에서 한류테마 쇼핑몰 ‘한국’을 열어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설명회나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음
- 중요한 사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전역 백화점, 유통센터 매장의 폐점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임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한류테마-쇼핑몰-거품-많아/>

中 색조 화장품 시대 개막...코스맥스, 전용 공장 완공 ('17.1.19)

- 코스맥스가 중국 시장에 연간 2억 개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전용 공장을 짓고 성장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함
- 코스맥스는 18일 중국 상하이시 평센구에서 ‘색조 전용공장 완공 기념식’을 갖고 기초와 색조의 현지 이원화 생산체제를 갖췄다고 19일 밝혔음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2017011909442952425>

백화점·대형마트 네일숍 17곳 불법영업 적발('17.1.19)

- 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네일숍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음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를 적발하고 면허없이 미용시술을 해온 무자격 네일미용사와 대표 등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501/cat/10/page/1>

◦ 국내외 정보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화장품행정허가 연장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의견조회문)

2016년 12월 14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화장품행정허가 연장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의견조회문)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고에는 화장품행정허가(수입비특수용도 화장품등록증 포함) 연장 신청 및 접수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행정허가 연장 신청 및 접수처리 관련
- 화장품 관련 여러 개의 행정허가 사항을 동시에 신청 및 심사하는 것 관련
- 화장품행정허가기술심사 관련
- 공고의 실시 날짜 관련

※ 본 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WS01/CL0781/167373.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푸둥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17년 1월 17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중국 상해시 푸둥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해시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둥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한다.

-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 본 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fda.gov.cn/WS01/CL1870/168637.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CFDA 상해시 푸둥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 (잠정시행)의 발표에 관한 공고(2017년 제10호)

2017년 1월 18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중국 상해시 푸둥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의 발표에 관한 공고 (2017년 제10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고에는 상해시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업무 절차, 신청 시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 양식 및 중국 국경 내 책임자 수권서 양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내 책임자 수권
- 등록 시스템 사용자 명칭 등록
- 제품 등록 정보의 제출
- 등록정보 증빙의 생성
- 등록자료의 감독검사
- 등록정보의 변경 및 말소
- 현행 업무절차와의 연결
- 별첨1: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스템 기업 사용자 명칭 등록 신청서(양식)
- 별첨2: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경내 책임자 수권서(양식)

※ 본 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fda.gov.cn/WS01/CL1870/168659.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호주 바이어에게 듣는 한국 화장품의 진출방안

- 주요 바이어들의 국내 화장품에 대한 관심 대폭 증가 -
- 주로 미국, 영국시장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제품을 선택 -
- M사 담당자, “현지 브랜드 마케팅에 따라 성공과 실패 갈릴 것” -

□ 호주 화장품 소매 유통시장 현황

○ 화장품 전문 소매점의 두드러진 성장, 10~20대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제품 강세

- 호주 화장품 소매시장은 현지 내수경기의 악화와 온라인 해외직구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2~2017년) 동안 연평균 2.6%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6~2017년 시장규모는 약 4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작년에 비해 성장세를 보임.

- 호주는 특이하게 대형 약국 체인점에서 일반 화장품(기초화장품, 색조, 향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중 전국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Priceline(약 400개 매장 수), Soul Pattison(약 80개 매장 수)과 같은 체인점에서의 화장품 판매율이 대형 백화점이나 다른 화장품 소매점의 판매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화장품 전문 소매점 Mecca, Sephora의 성장

- 1997년 호주 멜버른에 첫 매장을 오픈한 Mecca는 화장품 브랜드인 Nars, Stila, Philosophy, Vincent Longo, Urban Decay, Benefit, Make up Forever를 소매로 판매하는 작은 매장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현재 전국 8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100여 개 브랜드를 판매하는 대형 소매업체로 성장함.

- Mecca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당시 호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고객 맞춤형 뷰티 컨설팅으로, 뷰티/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의 컨설팅을 매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함.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고품질의 다양한 신생 화장품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2015년 시드니에 첫 매장을 오픈한 글로벌 화장품 소매점인 Sephora는 현재 호주 내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마진을 줄인 경쟁력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음.

□ 호주 화장품시장 수요 동향 및 변화

○ 미국 화장품 트렌트를 반영한 구매 정책과 한국 화장품의 수요 증가

- Mecca와 Priceline의 화장품 시장점유율 상승 요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10~20대 젊은 소비층을 공략한 색조 화장품이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는 볼 수 없는 해외 신생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음.
- 화장품 중견 유통업체이자 현재 국산 브랜드를 Priceline에 유통하고 있는 M사의 구매 담당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호주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제품을 발굴하기보다는 미국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선점해 들여오는 것이 호주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함.
- 또한 M사의 마케팅 담당자에 의하면, 브랜드 인지도 부분에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산 브랜드가 호주에서 알려지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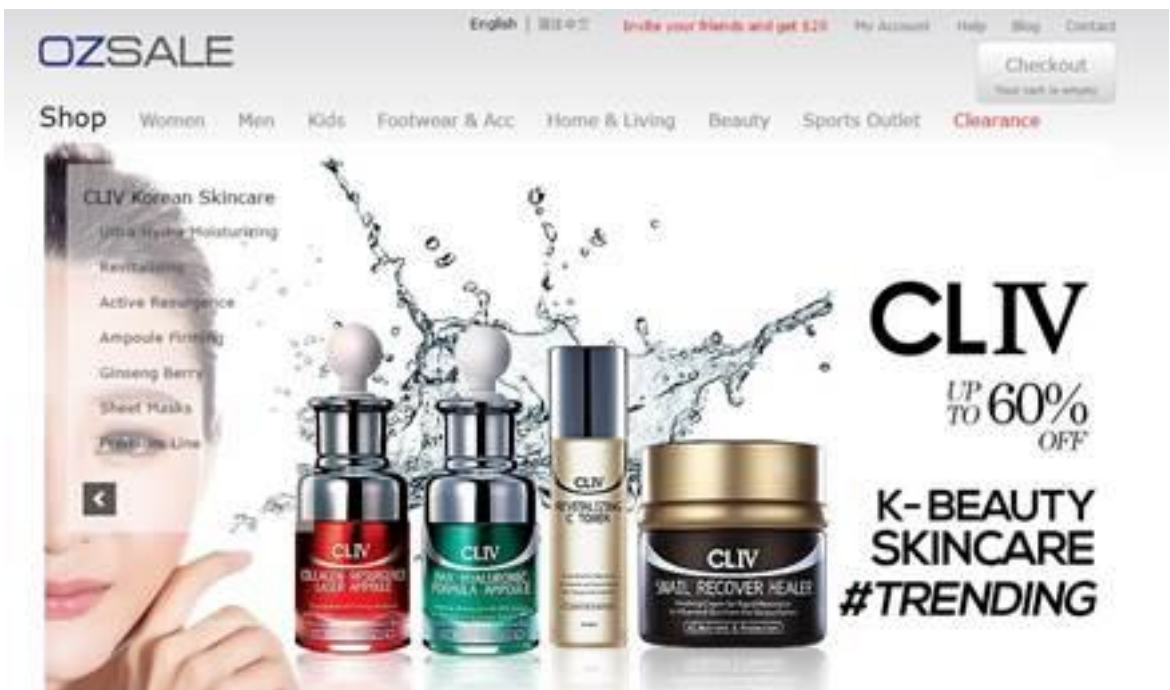
바이어 M사 구매담당자와 제품 상담 중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촬영

- 대양주 최대의 온라인 패션 쇼핑몰 OZSale의 첫 한국 화장품 판매시도
 - 연매출 1억 달러 이상의 대양주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OZSale은 약 1600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영국 등 9개국에 쇼핑몰 및 사무실 운영하고 있음.
 -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회원제(Members only)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3~5일간 온라인으로 반짝 세일(Sales Offer)을 공고해 구매할 의사가 있는 회원들이 구매하며, 이 기간에 판매된 수량을 확인 후 주문 고객에게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
 - KOTRA 시드니 무역관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OZSale를 접촉해 한국 제품 수입 및 판매를 요청했으며, 첫 결과물로 지난 12월 13일 한국 화장품 브랜드인 CLIV의 OZSale 판매를 실시하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음.

OZSale 한국 화장품 판매 광고



자료원: OZSale 홈페이지

- 화장품 구매 담당자에 의하면, 2017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화장품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근 국내업체와 3자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함.

□ 호주 화장품 구매 담당자들의 주요 검토사항

○ 타깃 시장에 맞는 제품 구성 및 영문 라벨 및 패키징 필수

- Priceline, Sephora, Mecca와 같은 소매점들은 세트상품보다는 개별 포장 상품을 선호함. 주 소비층이 젊은 10~20대들로 고가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중저가 기초 화장품의 수요가 많은 편임.
- 호주 시장에 맞는 영문 라벨과 패키징이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며, 라벨링에는 전성분과 원산지, 유통사 등의 필수정보들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함.
- 특히 최종 판매선반에 제품들을 올려놓았을 때 눈에 띄면서도 잘 어울리는 패키징을 선호한다고 함.

○ 화학성분 확인절차 및 등록 진행

- 호주 화장품 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기관 TGA산하 NICNAS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를 통한 화학성분 확인 절차가 필요함.
- NICNAS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록된 성분이라면 추가적으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성분일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이 수반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증명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이 수반됨.
- NICNAS 성분 등록여부 확인은 해당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가 있으면 홈페이지(<https://www.nicnas.gov.au/search>)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일반적인 화장품 패키징/라벨링의 예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촬영

□ 시사점

○ 전문적인 마케팅과 콘셉트가 필요한 화장품 시장의 진출

- M사 화장품 구매담당자에 의하면, 제품 브랜드명에도 스토리와 콘셉트가 담겨있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고 함.
- 대형 유통망에 단순히 입점시키는 것보다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초기 브랜딩을 잘하고 마케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 또한, 호주시장은 아시아 시장과 다르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특색과 명확한 콘셉트가 중요하며, 강점을 잘 부각시켜 현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국내 또는 아시아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우기 보다는 현지 수요 및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의외로 국내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시장점유율이 확고한 제품보다 한국인들에게조차 매우 생소한 국산 브랜드가 호주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호주 현지인 관점에서의 화장품 구매 선호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지 수요에 적합한 제품으로 구매 담당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 상담 시 샘플 제공은 필수이며, 호주 바이어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대량 수입하지 않으므로 수입량에 대해 초반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
- 바이어와 함께 호주시장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 노력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임.

자료원: OZSale 홈페이지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1. 16.〉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식약처 ‘2017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내용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7년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 화장품, 의약외품, 인체조직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동 기본계획 내용 중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중점 점검 사항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화장품 분야

-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사용, 품질검사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함.
-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등 배합한도 원료 함유 화장품, 계절별 다빈도사용 품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사회적 이슈(천연·유기농화장품,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 등) 품목, 계절별 다빈도 사용 품목 표시·광고 집중적으로 점검함.

• 의약외품 분야

- 화장품 전환대상 품목(염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제모제)을 포함하여 제조(수입)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구비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함.
- 유통되고 있는 의약외품의 품질, 표시기재 및 광고 위반 품목을 집중하여 점검함.

※ “2017년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 화장품, 의약외품, 인체조직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제68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

◆ 우리협회는 제68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7. 2. 8 (수) 오전 11시

나.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 볼룸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화장품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 제조판매업자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제조판매한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2017.2.28(토)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보고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 실적보고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 가기

※ 실적보고 자료 작성전에 '실적보고 관련 공지'에 게시된 자료(실적보고 작성 요령 등)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하여 2015.1.1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 [1~6월 수집정보 : 7월 중 보고, 7~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중 보고]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 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국가관 참가 해외전시회 일정 안내

◆ 2017년도 우리협회에서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해외 화장품 전시회일정입니다.

전시회명	개최일자	국가(도시)	지원기관	모집
인코스메틱유럽2017(in-cosmetics Global 2017)	2017.04.04~04.06	영국(런던)	중소기업청	모집중
중국상해화장품미용전시회	2017.05.23~05.25	중국(상해)	중소기업청	모집완료
중국광주화장품미용전시회(추계)	2017.09.04~09.06	중국(광주)	중소기업청	5월중
홍콩화장품미용전시회(cosmoprof Asia 2017)	2017.11.15~11.17	홍콩	KOTRA	4월중

*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문의 : 임종근 부장(Tel 02-785-3898, e-mail : rootim@kcia.or.kr)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7년 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 안내

-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은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화장품 원료목록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를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 보고토록 하여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원료목록 보고시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만 보고토록 인터넷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 따라서, 2017년부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료목록 보고시 원료명이 표준화된 명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표준화 원료 명칭을 보내드리오니 사전에 점검후 보고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된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에서는 원료 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로 하되, 다만 다음 성분은 제외하고 제출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않은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나. 배합금지성분 화장품 법령 준수 확인

다.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용기등의 전성분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 실적보고 시스템 리뉴얼중인 관계로 **2017. 1. 20(금)**이후 실적보고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목록 보고시, 첨부파일의 표준명 1 또는 표준명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하실 수 없습니다.

◆ 추진 현황

○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 ◆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중국소재	베이징신금정기술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재지시대
	베이징화하미풍 화장품기술센터
	북경매리스
	알란
국내 소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해외인증경영센터
	호경물산주식회사
	SMC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붙임2.「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중소기업중앙회)수출 현장애로 제출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수출회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종 및 분야별 현장 애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수출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첨부파일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시어 아래의 접수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제출 : (e-mail) trade@kbiz.or.kr

(fax) 02-3775-1981

- 문의 : 통상정책실 김형우 과장 (02-2124-3163)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충북 오송은 국가 유일의 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등 60여개의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위치한 보건의료행정타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관련 6개 국책기관이 이웃해 있어 생산부터 인증, 허가까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지역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세계 유일의 연구개발 클러스터입니다.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에서는 연구에서 제품·개발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해 주고, 입주기업은 다양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오송은 경부·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과 20분 거리에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충북은 이 모든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우수기업들과 함께 오송바이오폴리스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락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2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피어테크

창립 16주년(2001. 1. 1)

에이블씨엔씨

창립 13주년(2004.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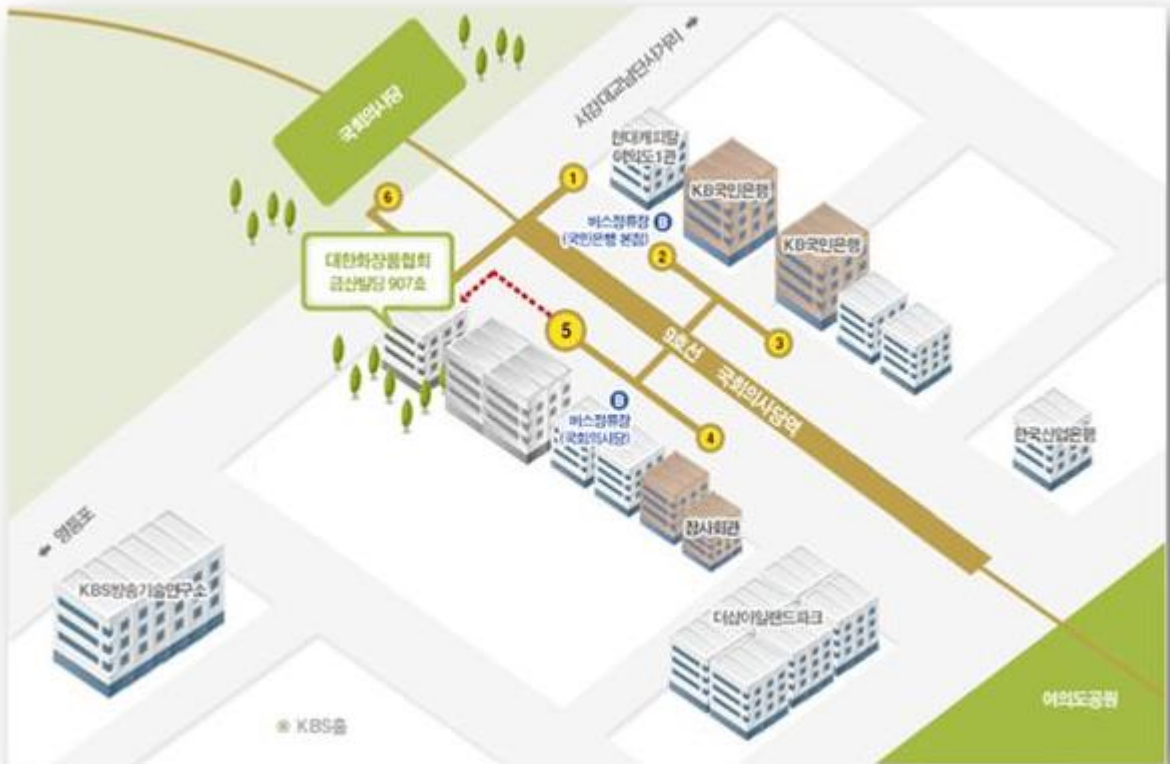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줄간격 180, 글씨 12포인트 기준)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